



승마축제 '메이온어호스'의 메인 프로그램 대명컵 국제승마대회에서 말과 기수가 하나가 되어 무른 잔디를 달리고 있다. 메이온어호스는 조금 열게 느껴지던 승마를 대중적인 레저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명그룹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다.

사진제공 | 대명그룹

‘먹거리’ 찾아나선 리조트업계

대명, '메이온어호스' 장기적 투자 하이원, 천체관측 테마 학습장 운영 한화, 아쿠아리움 운영 노후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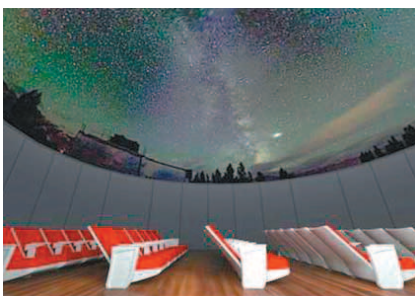
“가만히 앉아 찾아오는 손님만 기다리면 망하죠.”

대명, 한화, 하이원 등 국내 간판급 리조트들이 요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흔히 리조트의 기획 상품이라면 계절에 맞춰 객실이나 부대 시설과 연계한 각종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적극적이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고, 또 시장 반응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대명리조트를 운영하는 대명그룹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승마 페스티벌 '메이온어호스'를 개최했다. 5월23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메이온어호스는 국제승

마연맹이 공인한 국제대회를 비롯해 생활체육인 대회, 승마체험 등 말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대명이 메이온어호스에 투입한 예산은 14억원. 올해 2만여명이 행사기간 방문했지만 냉정히 볼 때 수치면에서 보면 남는 장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명이 2년 연속 의욕적으로 승마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말산업 대중화와 승마 저변 확대가 미래의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승마는 여가시간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고급 레포츠다. 대명은 비발디파크 내에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에는 승마팀도 창단했다. 미래 레포츠 수요로 승마를 주목하고 긴 안목에서 투자하고 있다. 서준혁 대명홀딩스 대표는 “레저산업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승마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하이원 자연학습장 내 천체투영관

하이원 리조트는 고산지대와 맑은 공기 등 천체의 입지를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이밍(가치노)에 편중된 매출을 다변화하고, 향후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하늘길 트레킹, 운탄고도 관광 콘텐츠 개발, 산악승마 등을 시도한데 이어 최근에는 천체관측을 테마로 한 자연학습장을 올 여름부터 운영한다. '하이원 자연학습장'(가칭)은 8m 원형 돔과 38석의 좌석, 4채널 프로젝터 등을 갖춘 플라네타리움을 중심으로 5대의 천체망원경을 갖춘 천체관측실과 강의실

을 갖추었다. 자연 학습과 과학 콘텐츠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동반한 가족방문객을 확대하고 리조트 체류 기간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곳도 있다. 한화리조트는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이 장시성 난창시에 문을 연 '난창완다해양낙원'의 설계자로부터 시설, 공연, 생물관리, 마케팅 등 운영 전반을 10년간 담당한다. 한화는 1985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비롯해 제주 여수 일산에 '아쿠플라넷'이란 브랜드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다. 30년 넘게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마케팅 기법으로 거대시장 중국을 개척하고 있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대규모 레저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고 시장 잠재력이 커서 난창시 외에 다른 지역도 주목하면서 긴 호흡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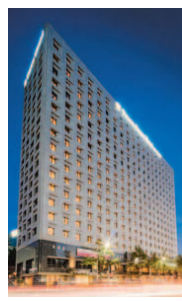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하나투어, 명동에 '티마크호텔' 오픈

라운지·수영장 등 럭셔리

하나투어 그룹이 호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명동 지역에 두 번째 호텔을 오픈했다. 하나투어는 남대문시장 앞의 옛 대한전선 빌딩을 리모델링한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동'을 개장, 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30년 마스터리스로 운영하는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동은 지상 20층 규모에 객실 576개를 갖춘 4.5성급 호텔이다. 객실에는 43인치 LED TV를 비롯해 욕조와 비데, 초고속 유·무선 무료 인터넷과 블루투스 알람시계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 객실 선택의 중요 사항으로 꼽히는 침구는 거위털과 순면 재질의 시몬스 뷰티레스트 베드를 도입했다.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인 명동, 남대문 시장에 인접한 위치를 발판으로 단체 관광객과 가족 중심의 개별자유여행객(FIT)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인근 다른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만 갖춘 업스케일 호텔을 지향하는데 반해 티마크호텔은 스위트룸, 이규제큐티브 플로

어와 라운지, 연회장, 수영장을 갖춘 파르나스 센터 등 럭셔리 호텔급의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식음료(F&B)업장도 외부업체가 아닌 하나투어의 자체 브랜드인 뷔페 투르드고메, 한식 레스토랑 유람더그릴, 커피전문점 투르드 카페 등이 입점했다.

최종윤 티마크호텔 대표이사는 “호텔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지만 하나투어의 전세제 31개 해외지사를 통한 판매영업망을 지녀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하나투어는 호텔분야를 미래 신성장 비즈니스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김재범 전문가

‘여행의 모든 것’ 한국국제관광전

9일부터 나흘간 코엑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국내여행(인트라바운드)을 망라하는 여행 상품 견본시 '한국국제관광전'(KOT FA 2016)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1986년 처음 개막해 31회를 맞은 올해는 500개 부스에 걸쳐 해외 60여개국, 국내 50여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일반 여행소비자를 위한 관광상품 소개(B2C)와 함께 해외여행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지자체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인바운드 트레이드박(B2B)가 함께 열린다. 또한

한-아세안센터, 국제관광인포럼, 한중마케팅협회 등 여행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한다.

특히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테마여행 붐에 맞춰 국내 테마여행 전문 여행사의 특별상품 판매와 여행고수 8인의 투어토크쇼가 행사기간 동안 열린다.

이밖에 기후변화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해 행사를 '탄소제로' 박람회로 만들기 위해 예코부스를 만들어 친환경 물병 증정 등의 이벤트를 열고 테마 전시로 남미와 아프리카의 명품 커피를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스마트여행족, 이 앱에 주목!

스카이스캐너, 전 세계 항공편 검색 위시빈, 9만개 이상 여행 일정 제공

배낭족(백패커)의 상대적 개념인 '플래시패커'가 요즘 젊은 세대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쉼 숙소와 교통편을 선호하고 그로 인한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배낭족(백패커)과 달리, 플래시패커는 휴대전화,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여행 필수품으로 챙기고 이를 이용해 여행 경험을 실시간으로 SNS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규격화된 여행상품 보다는 남과 다른 경험을 얻

기 위해 자신이 교통부터 숙소, 스케줄까지 능동적으로 준비를 한다. 특히 플래시패커들에게 여행관련 각종 어플리케이션은 여행의 시작이나 완결이다.

'스카이스캐너'는 플래시패커들이 즐겨 쓰는 인기 앱이다.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수만 편의 항공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도착지를 '모든 곳'(Everywhere)으로 설정하면 날짜와 기간에 따라 구매 가능한 항공권을 저렴한 순으로 검색해볼 수 있다.

'위시빈'(Wish Been)은 남과 다른 나만의 여정을 구성하고 싶은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인 앱이다. 여행자들이 올린 9만6000여개의 일정과 33만여개의 여행지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샤를 드 골 공항에서 투브르박을 관까지 가장 빠른 교통 정보나 현지인들이 꼽는 진정한 맛집 등의 생생한 체험 정보가 매력적이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용한 오프라인 맵 서비스 '시티맵투고'(City Maps 2 Go)도 있다.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해당 지역의 정확한 지도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와이파이나 3G가 아닌,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하

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치뿐 아니라 주변 정류장, 식당, 카페, 병원 등과 같은 편의 시설도 검색도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여행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SNS에 올리는 플래시패커에게 사진 앱은 중요하다. '스냅시드'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강점이다. 기능은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정교한 편집을 지원하며 특히 감도가 좋아 깔끔한 터치가 가능하다. 채도·대비·밝기 등 기본보정 외에 잡티 제거, 다듬기·브러시 등을 통해 세밀한 편집도 가능하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스카이스캐너



위시빈



시티맵투고



스냅시드

대한항공·진에어, 공동운항 확대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운항 중인 부산-광주 노선과 인천-사이판 노선의 공동운항을 확대한다. 부산-광주 노선은 1월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은 9월부터 실시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2015년 3월부터 공동운항을 실시해 현재 부산-광주, 인천-사이판 노선 외에 인천 출발 클락, 호놀룰루, 코타키나발루 등과 부산 출발 세부, 다낭 등 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들은 진에어가 운항하는 공동운항편을 탑승할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한식재단 '한-터키 음식문화 교류전'

한식재단은 2일부터 5일까지 주한 터키 대사관과 함께 서울 청계천로 K-Style Hub 한식문화관 4층 체험관에서 '한-터키 음식문화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교류전은 한국과 터키의 유사한 식문화를 살펴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2일 개막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터키 만트와 한국의 만두 요리 및 터키 케밥과 한국식 숯불구이 요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요리 교실을 진행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미국정품** ●

강한남자

1회복용 5일지속/캡셀

천연 (아르젠) 성분 (U.S.A)

한통30정 **효과 100% 카드 가(최저가)**

농협 791-02-067290 김태수

010-7600-4116

2016년형 007스파이 적외선 시계 캠코더

16GB 대용량 800만화소, 방수, HD영상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동시녹음, 사진촬영 48,000장 불빛이 전혀 없어도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다!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는 보통 손목시계이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 및 야간촬영이 가능하며 야간촬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불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은 메모리 16기가로 48,000장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USB로 연결 시 이동디스크 인식!** 업무상 비밀녹음, 녹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역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거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쓰레기 무단 투척, 불법선거운동, 환경오염, 계약위반증거자료 불법행위 증거자료등 수집이 가능하다.

평상시에는 손목시계로 사용하시다가 언제든 남이모르게 녹음 및 동영상촬영, 적외선촬영까지 동시에 1회작동으로 가능하므로 분쟁이 많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월30,000원~월33,000원(신제품)이면 구입가능!
메탈(스텐)시계줄,USB케이블,일반용,차량용충전기,등을 증정

문의: 1899-3177 / 02-474-8822

신제품
특고급형

고급형